

#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 차 례

1. 타이완의 역대 선거와 양안관계 변화
2. 2020년 선거 결과 및 주요 요인
3.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타이완은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양대 정당인 국민당(國民黨)과 민진당(民進黨)에 의해 정권교체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긴장과 협력 분위기가 교체되어 나타남.
- ▶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15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라이칭더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총 의석 113석 중 민진당이 절반이 넘는 61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유지함.
  - 2019년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동년 6월 홍콩의 시위 사태 등이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 미국이 친미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을 지지한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타이완의 경제성장을 반등과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율이 민진당 승리의 요인으로 평가됨.
- ▶ 당분간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는 큰 후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강경한 군사적 행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양안간 인적교류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광제한 조치가 지속·확대될 경우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인 수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과는 달리 양안간 무역은 그동안 집권당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어 온바, 이번 차이잉원의 당선이 양국간 교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이번 타이완 선거 결과로 인해 타이완의 동남아 진출 가속화 및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연이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줌.
  - 차이잉원 정부가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추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 양안관계 악화는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에는 일정한 기회요인으로 작용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될 경우, 주변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1. 타이완의 역대 선거와 양안관계<sup>1)</sup> 변화

## 가. 역대 선거와 양안관계 변화

■ 타이완은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양대 정당인 국민당(國民黨)과 민진당(民進黨)에 의해 정권교체가 반복되어 왔으며, 집권당의 對중국 입장에 따라 양안 사이에 긴장과 협력 분위기가 교체되어 나타남.

- 1996년 첫 직선제로 총통에 당선된 리덩후이(李登輝)의 국민당은 2000년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 천수이벤(陳水扁)의 민진당에 정권을 내어줌.
- 2008년에는 다시 마잉주(馬英九)의 국민당이 정권을 탈환했고, 2016년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蔡英文)이 당선됨으로써 민진당이 재집권함.
- 국민당은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며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데 반해, 민진당은 당 헌장에 '타이완 독립을 지향한다'고 명시하며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sup>2)</sup>

표 1. 역대 타이완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변화

회차	연도	당선인	집권 시기 양안관계	주요 사건
8	1990	리덩후이 (국민당)	공식접촉 및 교류·협력 제도화 시작	· 1991년 해협교류기금회(台), 해협양안관계협회(中) 설립 · 1992년 9·2 컨센서스(九二共識) <sup>3)</sup> 발표 · 1993년 왕고(王辜)회담을 계기로 점진적인 화해·교류 모색 · 1995~96년 중국측, 리덩후이 방미에 대한 항의 및 총통 선거 겨냥해 타이완해협 미사일 발사 훈련
9	1996	리덩후이 (국민당)		
10	2000	천수이벤 (민진당)	타이완 독립을 둘러싼 긴장국면 속 실질교류 확대	· 2001년 타이완·중국 푸젠성 간 직항·교역·우편교환 시작 · 2002년 천수이벤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1개의 국가) 발언으로 양안관계 냉각 · 2005년 중국, 「反국가분열법」 발표
11	2004	천수이벤 (민진당)		
12	2008	마잉주 (국민당)	평화로운 관계 유지, 경제·사회 통합 강화	· 2008년 양안간 고위급회담 재개, 전면적인 직항·교역·우편교환 및 중국 본토 주민의 타이완 단체관광 시작 · 2010년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2015년 시진핑·마잉주 회담 개최
13	2012	마잉주 (국민당)		
14	2016	차이잉원 (민진당)	양안관계 냉각	· 차이잉원이 9·2 컨센서스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양안간 공식 연락체계 단절 · 2019년 시진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강조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 · 2019년 중국정부는 본토 주민의 타이완 개별관광을 금지

자료: 외교부(2017), 「중국개황」([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03&srchFr=&srchTo=&srchWord=&p: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03&srchFr=&srchTo=&srchWord=&p: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1) 양안관계(兩岸關係)는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서안(西岸)인 대륙과 동안(東岸)인 타이완이 마주하고 있어 양안으로 불림.  
2) 공유식, 강준영(2017), 「타이완 차이잉원의 탈중국정책-양안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라문화』, 54호.  
3) '9·2 컨센서스(consensus, 共識)'는 1992년 중국과 타이완의 반관영 기구 사이에서 합의된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냄. 다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지 아니면 중화민국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異見)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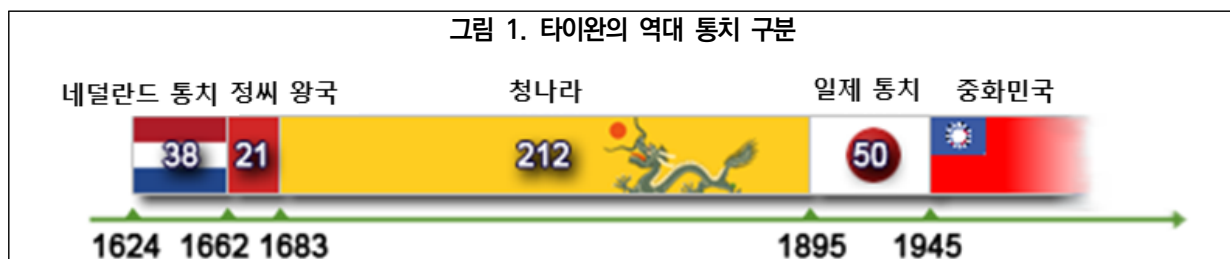
■ 국민당의 리덩후이, 마잉주 집권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양안간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확대됨.

- 리덩후이 집권 시기에는 비록 중국이 타이완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양안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도 있었으나, 중국과 타이완의 공식 접촉이 시작되고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내용에 공동으로 합의한 9·2 컨센서스가 발표되는 등 양안간 교류·협력의 발판이 형성되기 시작함.
- 마잉주 집권 시기에는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양안 최고 지도자간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이 체결되고 중국 본토 주민의 타이완 관광이 허용되는 등 중국·타이완이 안정된 관계 속에 교류·협력을 강화함.

■ 민진당의 천수이볜, 차이잉원 집권 시기에는 양안간 교류가 지속되면서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발생함.

- 천수이볜 집권 시기에는 천수이볜이 중국의 '일국양제론'에 반하는 '일변일국론(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1개의 국가라는 의미)'을 주장하고, 중국은 「反국가분열법」을 통해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해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명함으로써 양안간 긴장관계가 조성됨.
- 2016~19년 차이잉원 집권 시기에는 차이잉원이 '하나의 중국' 원칙의 명시적인 인정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양안간 공식 연락체계가 단절되는 등 마잉주 정권 시기 완화되었던 양안관계가 냉각됨.

글 상자. 타이완의 역사<sup>4)</sup> 및 정치체제



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 타이완에는 오래 전부터 말레이와 폴리네시아계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2세기경부터 중국대륙에서 한족(漢族)이 이주해오기 시작

- [1662~1895년] 명나라 후반인 16세기 말부터 현재의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한족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는데, 1661년 명나라 군인인 정성공(鄭成功)이 당시 타이완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타이완 사상 처음으로 한족 정권을 수립
  - 정성공은 '반청복명(反淸復明)'을 추구했으나 1683년 청나라에 제압당했고, 그후 타이완은 청나라에 정식 편입됨.
- [1895~194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시모노세끼(下関)조약에 의해 타이완은 일본에 할양되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됨.
- [1945~1980년대 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에 따라,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



#### 나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에 귀속

- 타이완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국민당 관헌(외성인, 外省人)의 무능과 부패로 타이완 원주민(본성인, 本省人)의 불만이 폭발하여 양측 사이에 대규모 충돌 발생(1947년 2.28 사건)
- 1949년 12월 8일,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난징(南京)에서 타이완의 타이베이(台北)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타이완을 통치하기 시작
- 국민당 정부(외성인)와 타이완 원주민(본성인) 사이에 충돌이 이어지자, 1949년 국민당 정부는 계엄령을 발포하며 1987년 계엄 해제 때까지 38년간 공포정치를 실시
- [1980년대 말~현재] 1970년대 말부터 타이완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됨.
  - 계엄령이 해제되자 타이완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신문발행의 자유가 인정됐고, 타이완 주민의 대륙방문도 허용되어 1991년에는 중국 대륙을 방문한 타이완인 수가 100만 명에 달함.
  - 1988년 장징궈(蔣經國)가 사망한 이후 집권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은 점진적인 민주개혁을 추진하여 1992년 12월 최초로 입법원에 대한 민주선거가 실시되었고, 1996년 3월에는 타이완 역사상 최초로 총통 직선제가 실시됨.
  - 2000년 3월 야당인 민진당(民進黨) 후보 천수이벤(陳水扁)이 국민당 후보 쑨연(連戰)을 이기고 총통에 당선되어 최초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 정치체제와 주요 선거

- 타이완(중화민국)의 정치체제는 입헌민주공화제(立憲民主共和制)로서 총통(總統)이 타이완을 대표, 총통 아래에 행정원(行政院)과 입법원(立法院), 사법원(司法院), 고시원(考試院), 감찰원(監察院)의 5원(院)을 두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타이완의 정치체제를 보통 '5권 분립 제도'라 함.
  - 총통은 타이완을 대표하며,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총통은 군대에 대한 통수권 및 각종 조약의 체결, 선전(宣戰), 법률 공포, 계엄령 선포 등의 권한을 가짐.
  -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총통이 원장(院長)을 직접 임명하고, 입법원은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선거민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입법위원(立法委員)으로 구성됨. 입법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며,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사법원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고, 고시원은 주로 국가고시, 공무원의 임면·고과·퇴직·상벌 등 직무를 수행하며, 감찰원은 국가의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권·감사권 등을 행사함. 고시원과 감찰원의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6년임.
- 타이완의 주요 선거로는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 해당하는 총통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입법위원<sup>5)</sup> 선거가 있음.
  - 총통 선거: 1990년 제8회 총통 선거까지는 국민대회가 총통, 부총통을 선출했고 임기는 6년이었지만, 1994년 헌법 개정에 의해 1996년에 실시된 제9회 총통 선거부터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4년으로 단축(1회 연임 가능하며 정·부 후보가 짝을 이루어 입후보)
  - 입법위원 선거: 현재 입법위원 정수는 113의석으로 임기는 4년임. 소선거구 선출 73석과 비례대표·해외대표 선출 34석, 타이완 원주민 선출 6석으로 구성됨.

4) 中華民國(臺灣)外交部가 발행한 「2010-2020 TAIWAN(2019)」의 역사 부분 pp. 15~30에 서술된 내용을 참고로 작성.

## 2. 2020년 선거 결과 및 주요 요인

### 가. 2020년 선거 쟁점 및 경과

■ [후보자]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친민당(PFP) 쑹추위(宋楚瑜)가 각 총통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차이잉원과 한궈위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 형성

- 타이완의 현직 총통인 차이잉원은 항중보대(抗中保臺)<sup>6)</sup>를 통한 타이완의 주권 수호를 주장하며 재선에 도전
  - 민진당 내에서 후보 경합을 벌이던 강경 독립파 라이칭더(賴清德) 전 행정원장을 부총통 후보로 선정
- 가오슝(高雄)시의 현 시장 한궈위는 정치적으로 무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의 오랜 텃밭인 가오슝시의 시장에 당선되며 대선후보로 부상<sup>7)</sup>
  - 중도층의 표를 결집하고자 정·재계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능력이 유능한 것으로 알려진 장산정(張善政) 전 행정원장을 부총통 후보로 선정<sup>8)</sup>
- 12~14대에 이어 15대 대선에도 후보로 출마한 쑹추위는 광고계의 유명 기업가인 무소속 위상(余湘)을 부총통 후보로 지목

■ [주요 공약] 차이잉원 후보는 타이완의 주권 수호를 핵심으로 하는 독립성 확보, 한궈위 후보는 양안관계 안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중시(표 2 참고)

표 2. 2020년 타이완 총통 선거의 주요 후보자 공약

구분	차이잉원·라이칭더(민진당)	한궈위·장산정(국민당)
양안 관계	· 중국에 대항하고, 타이완을 보호한다(抗中保臺) · 반침투법 입법으로 중국 선거개입 반대	· 양안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타이완의 안보강화와 경제성장(臺灣安全 人民有錢) · 9·2 컨센서스(九二共識) 견지
안보 문제	· 전방위적인 방어태세 구비, 비대칭전력 강화, 국민 사기 진작 · 임기 중 전함, 군용기의 타이완 내 생산 추진	· 국가지도자로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지혜 강조 및 국방력 담보를 위한 국방정책 중시 · 저출산 시대에 맞는 무인화, 스마트화 전력 증강
경제 문제	· [1개 실천] 반도체, AIOT(AI, 5G), 친환경에너지, 전국균형개발로 6조 NTD 투자 유치 · [6개 목표] △아시아 첨단제조 및 R&D 센터 설립 △ 아시아 친환경에너지 시장 선도 △아시아 금융자산운용 산업 선 △국가융자보증 시스템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	· 10조 NTD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 재외공관, 무역협회 등 해외채널을 통한 수출 확대 · 타이중, 가오슝 등지에 자유무역지구 설치 · 규제완화를 통해 인재, 금융, 교육, 의료 등 분야를 대폭 개방

5) 우리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

6) 중국에 대항하고 타이완을 보호한다는 의미.

7) 『연합뉴스』(2019. 7. 15), 「타이완 총통선거 대진표 확정…민진 차이잉원 vs 국민 한궈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5074451089?input=1195m>(검색일: 2020. 1. 10).

8) 『뉴스시스』(2019. 11. 11), 「타이완 국민당, 대선 한궈위·장산정 正副총통 후보 확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1\\_0000826457&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1_0000826457&cID=10101&pID=10100)(검색일: 2020. 1. 16).

구분	차이잉원·라이칭더(민진당)	한귀위·장산정(국민당)
	보 △글로벌 인재유치 △공정분배를 통한 경기체감 실현	
민생 정책	· 청년창업 지원, 지방의 창업 확대 정책으로 지방 인구 유실 문제 해결 · 0~6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증가 · 노인 주거시설 추가 확충	· 청년 결혼, 주거지 등 자금 지원 및 점진 상환, 공공개발로 복합 인프라 구축하여 생활 편의 제고 · 출산보조금 차등 지급, 0~6세 양육비 지원 ·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보험, 전문 홈페이지 개설
환경 문제	· 원자력, 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풍력발전 지속 추진(2025년까지 1조 2천억 NTD 투자) ·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초 인프라 건설 △치수정책 △전국균형개발 추진	· 2035년 에너지 계획 · 원전 4호기 국민 동의하에 가동 재개 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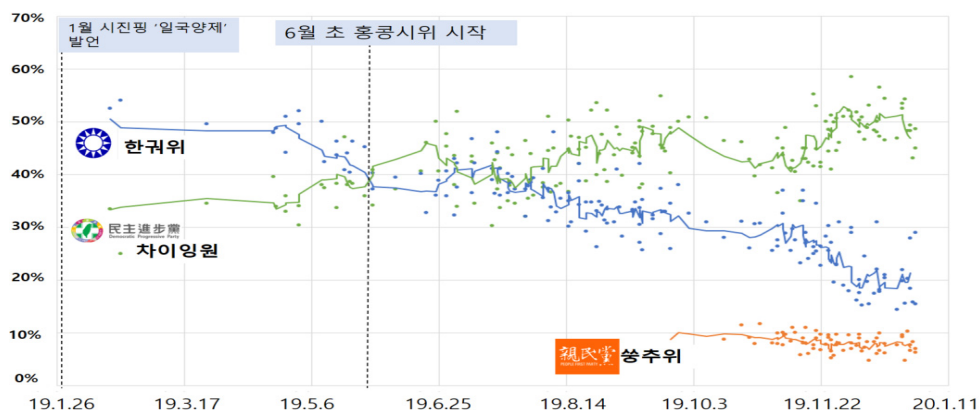
주: 타이완 총통부총통선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본정보(학력, 경력)가 기재되어 있고 정책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문기사 및 총통 부총통의 정견발표를 토대로 주요 공약을 정리함.

자료: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471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471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0. 1. 13) 및 각종 언론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주요 이슈] 2019년 초반에는 전임 총통의 정책 실패를 강조한 국민당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일국양제, 홍콩 시위 사태 등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에서 민진당이 우위를 점함.

-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경기부양 실패, 탈원전연금개혁에 대한 여론 악화,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경제 및 민생 문제로 2019년 초반까지 차이잉원의 재선은 불확실했음.
  - 2018년 지방선거에서 22개 시·현 중 민진당이 승리한 지역은 6개에 불과,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 사임<sup>9)</sup>
- 2019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양제 발언과 홍콩 시위 이후 선거의 주요 이슈가 민생문제에서 정치문제로 전환되면서 자주적 입장을 명확히 한 민진당이 우위를 점함.<sup>10)</sup>

그림 2. 타이완의 대선 지지율 변화



자료: Wikipedia, "Opinion polling for the 2020 Taiwanese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20\\_Taiwanese\\_general\\_election](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20_Taiwanese_general_election)(검색일: 2020. 1. 15).

9) 지은주(2019), 「2018년 타이완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분석」, 28(1),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0) 『YTN』(2020. 1. 13), 「[세계NOW] “타이완 차이잉원 재선 성공의 의미”」, [https://www.ytn.co.kr/\\_ln/0104\\_202001131228252738](https://www.ytn.co.kr/_ln/0104_202001131228252738)(검색일: 2020. 1. 15).

## 나.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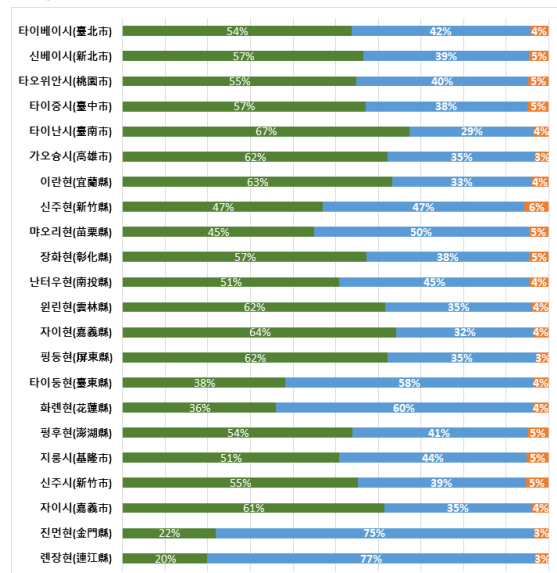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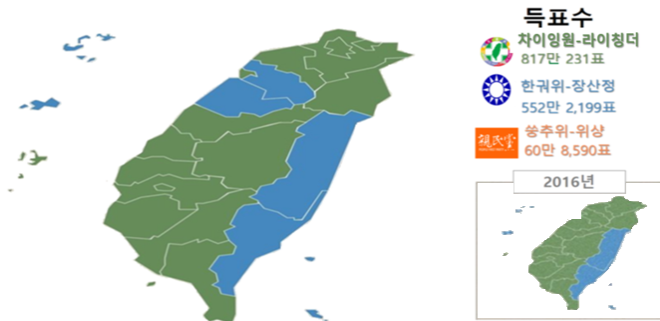
■ [총통·부총통]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15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라이칭더 후보가 압승을 거둬 따라 재집권이 확정됨.

- 차이잉원 후보는 1996년 총통 직선제 이후 최다 득표수인 약 817만 표(57.1%)를 얻어 국민당 한 귀위 후보의 552만 표(38.6%)에 대해 265만 표 차이로 당선됨.
  - 역대 득표수 2위는 2008년 765만 표를 득표한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sup>11)</sup>
- 특히 6대 직할시에서 차이잉원은 580만 표를 얻어 타이베이(54%), 신베이(75%), 타오위안(55%), 타이중(57%), 타이난(67%), 가오슝(62%)에서 모두 승리함.

그림 3. 타이완의 2020년 총선 결과

[15대 총선 개요]

- 유권자 수: 1,931만 1,105명
- 총 투표율: 74.9%



주: 지도 및 표에서 녹색은 민진당(DPP), 푸른색은 국민당(KMT), 주황색은 친민당(PFP)을 의미.

자료: Wikipedia 및 聯合新聞網(2020. 1. 13), 「2020大選結果：蔡英文連任、藍綠得票版圖、立委席次分布」, <https://opinion.udn.com/opinion/story/10763/4284347>(검색일: 2020. 1. 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입법위원]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총 의석 113석 중 민진당이 절반(57석)이 넘는 61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유지

- 민진당과 비교적 우호적인 범록연맹(泛綠聯盟)<sup>12)</sup>의 시대역량(時代力量) 3석과 무소속 4명을 통해 민진당은 안정적으로 과반 확보가 가능해짐.<sup>13)</sup>

11) 『세계일보』(2020. 1. 12), 「차이잉원 "중에 굴복 없다"... 양안관계 격랑」,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12507748?OutUrl=naver> (검색일: 2020. 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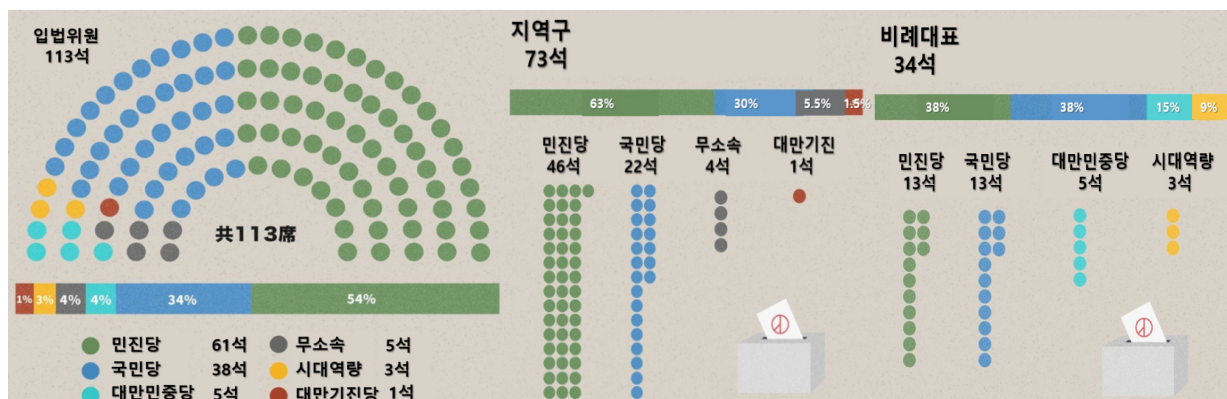
12) 타이완의 비공식적인 정치연맹으로 민진당(DPP), 타이완 단결연맹(TSU), 건국당(TAIP)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세력.

13) 香港01(2020. 1. 14), 「台灣大選-蔡英文樹立新障礙-拒絕北京-成民意板塊」, <https://www.hk01.com/台灣新聞/420660/2020>(검색일: 2020. 1. 13).



- 국민당은 득표율 2위로 38석을 기록하였으나, 국민당에서 분리되었던 친민당은 기존 3석에서 무의석으로 전략
- 지역구(73석)에서는 올해 410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바, 민진당 46석, 국민당 22석, 무소속 4석, 타이완기진(台灣基進)이 1석을 획득
- 6개 직할시에서는 민진당이 48석 중 33석을 차지하여 다수를 점했고, 특히 타이난시와 가오슝시에서는 민진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함.
- 비례대표(34석)는 19개 정당, 총 216명이 출마했으나 4개 정당만이 5%를 초과하여 민진당 13석(481만 표, 33.98%), 국민당 13석(472만 표, 33.36%), 민중당(民衆黨) 5석(158만 표, 11.22%), 시대역량 3석(109만 8,100표, 7.75%)을 차지
- 커윈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이 2019년 8월 창당한 민중당이 5석을 차지
- 그 외 원주민 부문에서는 평지원주민 3석에 대해 국민당이 2석, 민진당이 1석을 차지했고, 산지원주민 3석에 대해서는 국민당이 1석, 민진당이 1석, 무당단결연맹(無黨團結聯盟)이 1석을 차지

그림 4. 제10대 입법위원 선거 결과



자료: 聯合新聞網(2020. 1. 13), 「2020大選結果: 蔡英文連任, 藍綠得票版圖, 立委席次分布」, <https://opinion.udn.com/opinion/story/10763/4284347>(검색일: 2020. 1. 13).

- [각국 반응] 미국, 일본을 비롯한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이잉원 총통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며 타이완 독립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반대한다고 표명
- 미국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미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킨 차이잉원의 재선을 축하하고, 차이 총통이 중국의 압력하에서도 양안간 안정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sup>14)</sup>
  - 일본 외무성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는 총통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중국·타이완 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표명<sup>15)</sup>
  - 반면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타이완 선거가 중국 지역 내 선거임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각국의 축하 행위를 반대한다고 언급<sup>16)</sup>

14) 『REUTERS』(2020. 1. 12), *U.S. applauds Tsai's re-election as Taiwan president: Pompeo*, <https://www.reuters.com/article/us-taiwan-election-usa/us-applauds-taiwan-president-re-election-pompeo-idUSKBN1ZA0M3>(검색일: 2020. 1. 16).

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2020. 1. 11),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aiwan (Statement by Foreign Minister MOTEGI Toshimitsu)*,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2752.html](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2752.html)(검색일: 2020. 1. 16).

- 중국 타이완판공실 대변인 마샤오광(马晓光)은 ‘하나의 중국’ 및 ‘9·2 컨센서스(共识)’ 입장을 견지하며 ‘화평통일, 일국양제’ 기본방침을 고수, 어떠한 형태라도 타이완의 독립과 분열을 모의하는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함을 표명<sup>17)</sup>

## 다. 주요 요인

■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일국양제 관련 발언과 동년 6월 홍콩 시위사태 등으로 타이완 내 반중 정서가 확대되어 민진당 차이잉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2019년 1월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동포에게 알리는 글(告台湾同胞书)」 40주년 발표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일국양제 통일의 당위성 및 무력 행사의 가능성을 언급<sup>18)</sup>
- 시진핑 주석의 발언 후 타이완 내 일국양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어, 2016년 총통 당선 이후 양안 관계 단절, 경제둔화로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졌던 차이잉원 후보자의 지지율이 반등
  - 2019년 1월 성인남녀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0.9%가 일국양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sup>19)</sup>
- 2019년 3월에 시작된 홍콩 시위사태가 6월경 반(反)중국 및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자, 타이완 내에서도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亡國感)가 커짐.
  - 민진당 차이잉원은 홍콩 시위와 관련하여 “홍콩의 현재가 타이완의 미래”일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당 한귀위와 친민당 쑹추위는 홍콩 이슈를 선거에 이용한다며 비난
  - 특히 친중 성향의 한귀위 후보는 2019년 초 일국양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홍콩 시위사태 이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미 차이잉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짐.

■ 친미 성향의 현 총통 차이잉원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

- 차이잉원은 2018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개각에서 외교부장·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라인에 친미, 반중 성향의 인사를 기용,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옴.<sup>20)</sup>
- 미국은 2018년에 타이완과의 고위관료 교류를 허용하는 「타이완여행법(TTA)」을 비롯하여 2019년에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허용하는 「2020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발효하는 등 현 타이완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군사적 지원을 제공

16)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3856265>(검색일: 2020. 1. 16).

17) 中共中央台湾工作办公室(2020. 1. 15), 「国台办新闻发布会辑录 (2020-01-15)」, [http://www.gwytb.gov.cn/xwfbh/202001/t20200115\\_12233155.htm](http://www.gwytb.gov.cn/xwfbh/202001/t20200115_12233155.htm)(검색일: 2020. 1. 16).

18) 『新华网』(2019. 1. 2), 「>习近平: 为实现民族伟大复兴 推进祖国和平统一 而共同奋斗——在《告台湾同胞书》发表40周年纪念会上的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1/02/c\\_1123937757.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1/02/c_1123937757.htm)(검색일: 2020.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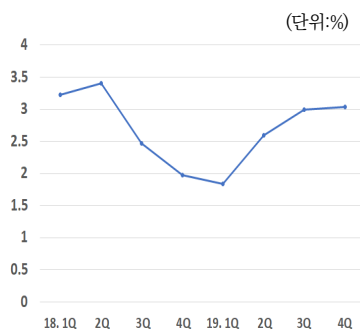
19) 『연합뉴스』(2019. 1. 10), 「시진핑 '무력통일 불사'에 역풍...타이완인 80%, 일국양제 반대」,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0132700009>(검색일: 2020. 1. 16).

20) 『서울경제』(2018. 2. 23), 「차이 타이완 총통, 반중·친미 인사 외교안보 전면예」, <https://www.sedaily.com/NewsView/1RVTEXABUB>(검색일: 2020.1.16).

## ■ 경제성장을 반등과 함께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율이 실제 투표로 연결되어 최대 투표율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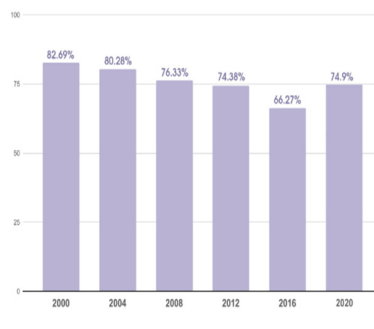
-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재(在)중국 타이완기업의 회귀로 인한 타이완기업의 대내투자 촉진, 미국의 중국 제품 대체에 따른 이득 등으로 2019년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sup>21)</sup>
- 15대 선거 개표 결과 투표율은 74.9%(1,931만 1,105명 중 1,446만 4,571명이 투표)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함.
  - 2016년 대선(66.2%)보다 투표율이 8.7%p 정도 상승했고, 2012년(74.4%)보다도 높은 수치
- 전체 유권자의 34.5%를 차지하는 20~30대의 투표율이 80%를 넘어섬.<sup>22)</sup>
  - 특히 전체 유권자의 6.1%를 차지하는 20~23세 첫 투표 유권자는 118만 6,685명으로, 여론조사에서 민진당 차이잉원은 23살 이하 청년층에서 6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sup>23)</sup>

그림 5. 타이완 분기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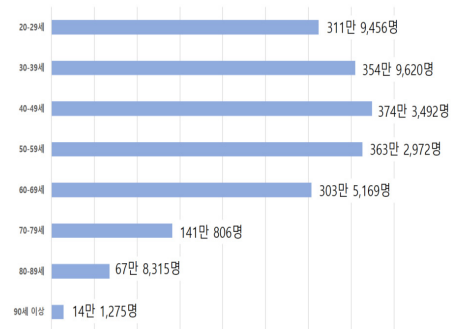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검색일: 2020. 1. 16).

그림 6. 역대 총통선거 투표율



자료: 聯合新聞網 홈페이지, <https://udn.com/vote2020/open>(검색일: 2020. 1. 16).

그림 7. 2020년 유권자 연령별 분포



자료: 中央社(2020. 1. 8), 「中選會: 總統選舉人數1931萬 40至49歲居冠」, <https://www.cna.com.tw/news/firstnews/202001070261.aspx>(검색일: 2020. 1. 16).

## 3.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 가. 경제교류 방면

- 정치 영역과는 달리 양안간 무역은 집권당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로, 이번 차이잉원의 당선이 양국간 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sup>24)</sup>

21) KOTRA 해외시장뉴스, 「타이완 경제, 2019년 실적과 2020년 전망」,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9710>(검색일: 2020. 1. 16).

22) 『YTN』(2020. 1. 13), 「[세계NOW] “타이완 차이잉원 재선 성공의 의미”」, [https://www.ytn.co.kr/\\_ln/0104\\_202001131228252738](https://www.ytn.co.kr/_ln/0104_202001131228252738)(검색일: 2020. 1. 15).

23) 『한겨레』(2020. 1. 8), 「11일 타이완 총통 선거, 남은 변수는 투표율과 젊은 표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3675.html#csidx34320925c24ab059a9c97482f6cf8e7](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3675.html#csidx34320925c24ab059a9c97482f6cf8e7)(검색일: 2020. 1. 16)

24) 『中央社』(2020. 1. 13), 「從總統大選看兩岸經貿 學者: 政權轉移沒有影響」; 『中國時報』(2020. 1. 12), 「跟大陸互動 有利經濟 蔡第二任期 兩岸破冰很重要」.

- 양안간 무역액은 국제경기 불황 및 타이완 국내 불황으로 인해 마잉주 집권 말기와 차이잉원 집권 초기인 2015~16년 잠시 둔화세를 보였으나, 2009년 793억 2,000만 달러에서 2018년 1,502억 8,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
- 타이완 전체 무역에서 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집권 정당과 무관하게 꾸준히 늘어, 2009년 20.7%에서 2018년 24.3%로 증가
  - 일부 전문가들은 홍콩을 통한 직간접 수출입이 타이완의 對중국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 타이완의 對홍콩 무역액을 합한 수치로 양안 무역을 살펴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안간 교역이 타이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며, 특히 차이잉원이 집권한 2016~18년에도 3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해 ‘정랭경열(政冷經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sup>25)</sup>
-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전에는 양안간 무역정책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에 많이 좌우되었으나, WTO 가입 후에는 양안 모두 회원국으로서 제도화된 무역정책을 따르고 있어 양안간 정치문제가 경제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임.<sup>26)</sup>

■ 미·중 무역분쟁 및 RCEP, CPTTP 등 지역경제협력에서 타이완 소외, 무역다변화 정책 등이 양안 교역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타이완은 한국처럼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타이완의 전문가들은 민진당의 재집권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양안 교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sup>27)</sup>
  - 일례로 생산된 반도체의 10%를 중국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는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 TSMC, ASE 등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납품이 중단될 경우 타이완의 對중국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sup>28)</sup>
- 타이완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지 못했고, 일본과 수산물 분야에서 무역마찰이 있어 한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입국 간 무역장벽 감소가 무역 증대로 이어질 경우 양안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 시장에서 여러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FTA, RCEP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교역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반해, 타이완은 민진당 집권 후 무관세 화물 추가 논의, 금융거래 활성화 논의 등이 중단되어 교역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타이완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29)</sup>
- 차이잉원 정부는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동남아시아 10개국 및 남아시아 6개국, 호주·뉴질랜드와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신남향정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당선 후 B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역 다변화를 강화할 것이라 표명<sup>30)</sup>

25) 『中央社』(2020.1.13), 「從總統大選看兩岸經貿 學者：政權轉移沒有影響」.

26) 타이완 중화경제연구원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9. 10. 2, 타이베이).

27) 미국무역대표부 홈페이지, “United States and China Reach Phase One Trade Agreemen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december/united-states-and-china-reach>(검색일: 2019. 12. 14).

28) 國政分析(2020. 1. 15), 「大選後的台灣經濟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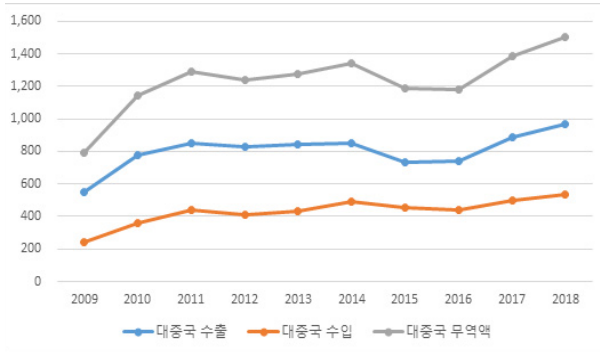
29) 타이완 중화경제연구원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9. 10. 2, 타이베이).

30) 『BBC』(2020.1. 5), 「台灣總統蔡英文：中國需要向台灣表示尊重」.



그림 8.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액(2009~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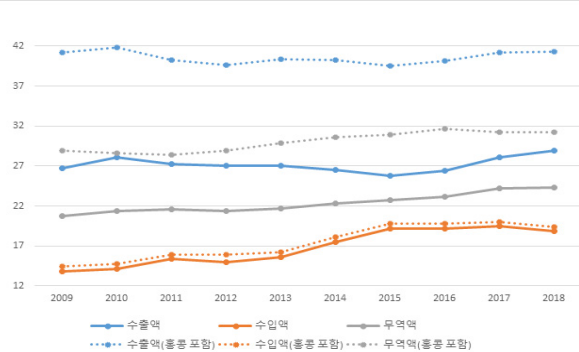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주: 홍콩 포함.  
자료: 타이완 대륙위원회.

그림 9. 타이완의 전체 무역액 중 중국 비중(2009~18년)

(단위: %)



주: 홍콩 포함.  
자료: 타이완 대륙위원회.

■ 선거과정 중 일부 타이완 기업과 국민당을 중심으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sup>31)</sup> 중단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중단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임.

- 2010년 체결된 ECFA가 10년 기한으로 2020년에 종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타이완 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ECFA에 10년 기한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중국·타이완 양측 정부는 ECFA 중단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sup>32)</sup>
- 차이잉원은 ECFA 중단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중국 타이완사무관공실은 2020년 1월 15일 “어렵게 성사된 ECFA를 잃는 것은 양안 모두 바라지 않는다”고 밝힘.<sup>33)</sup>
- ECFA로 인한 관세혜택이 사라지면 타이완의 對중국 수출에 농산품을 중심으로 200억 달러 정도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sup>34)</sup>

■ 타이완 재계의 對중국 투자는 최근 감소 추세로, 차이잉원의 재집권으로 인해 타이완의 리쇼어링(Re-shoring, 본국회귀 투자)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내 임금 상승 및 로컬기업 성장 등 비즈니스 환경 변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한 관세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일부 타이완 기업이 타이완 지역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sup>35)</sup>
- 차이잉원은 이에 맞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신년담화문에서도 리쇼어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투자를 더 확대해 타이완을 제조업, 과학기술 R&D,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핵심기지로 키울 것이라 공표<sup>36)</sup>

31)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2010년 6월 중국과 타이완이 중국 충칭에서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의미.

32) 『聯合報』(2019.12.12), 「韓提重新協商ECFA 經濟部:沒有10年到期規定」.

33) 『环球网』(2020.1.15), 「国台办: ECFA得来不易 两岸同胞都不希望这一重要成果而复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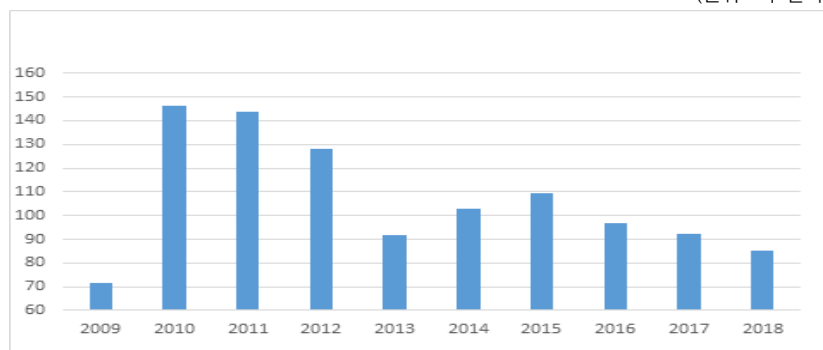
34) 『新頭殼』(2019.10.1), 「若中國官方片面取消ECFA 經濟部:影響5%出口」; 國政分析(2020. 1. 15), 「大選後的台灣經濟展望」.

35) 『매일경제』(2019. 12. 24), 「“타이완 올 2.6% 성장”...차이잉원 대선 독주 뒤엔 ‘경제’ 있었다」.

- 2019년 ‘타이완 기업 본국 회귀투자 촉진책’을 시행하고 유턴기업에 토지 및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 차이잉원 총통은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타이완 회귀투자를 결정한 중국 진출 기업의 타이완 투자 신청규모가 6,000억 NTD(한화 약 23조 원)를 초과한다고 밝힘.<sup>37)</sup>
- 이에 대응해 중국은 타이완의 투자를 유지하고자 타이완 기업에 대해 본토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조치(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를 발표하는 등 투자 혜택을 확대
- 차이잉원 당선 직후 2020년 1월 13일 쉰진시 정부는 타이완 주민이 쉰진에서 학업, 생활, 취업, 창업 시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46개 타이완 혜택조치(惠台四十六條措施)를 발표하기도 함.<sup>38)</sup>

그림 10. 타이완의 대중국 투자(2009~18년)

(단위: 억 달러)



자료: 타이완 대륙위원회.

## 나. 정치·군사 방면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중국은 국가통일을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관계의 중요한 기초로 인식
- 중국은 2011년 9월 6일 『중국의 평화발전(中国的和平发展)』 백서를 통해 △국가주권(国家主权)과 △국가안보(国家安全) △영토완정(领土完整) △국가통일(国家统一)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中国宪法确立的国家政治制度和社会大局稳定), 그리고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基本保障)을 6가지 핵심이익으로 규정<sup>39)</sup>

36) 대한민국 주 타이베이대표부(2020. 1. 2), 「타이완 정세: 차이잉원 총통 2020년 신년 담화문 발표」; 『매일경제』(2019. 12. 24), 「타이완을 2.6% 성장...차이잉원 대선 독주 뒤엔 '경제' 있었다」.

37) 대한민국 주 타이베이대표부(2020. 1. 10), 「차이잉원 총통, 美《TIME》誌 인터뷰 실시」.

38) 대한민국 주 타이베이대표부(2020. 1. 15), 「타이완 정세: 양안관계 동향」.

39) 百度百科,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 <https://baike.baidu.com/item/%E3%80%8A%E4%B8%AD%E5%9B%BD%E7%9A%84%E5%92%8C%E5%B9%B3%E5%8F%91%E5%B1%95%E3%80%8B%E7%99%BD%E7%9A%AE%E4%B9%A6/3629241?fr=aladdin>(검색일: 2020. 1. 17).

- 반면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초선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시한 ‘9·2 컨센서스’를 부정한 데 이어, 이번 재선 후에도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차이잉원 총통의 러닝메이트인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이완은 이미 주권 독립국가”라고 표명한 바 있음.<sup>40)</sup>

####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

- 무역마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경쟁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미중 경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不沈航母)’으로 여기며, 對중국 견제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인식<sup>41)</sup>
- 반중친미(反中親美) 성향의 차이잉원이 재선함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차단하고, 타이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인 1월 16일, 미 제7함대 소속 이지스급 순양함 샤일로(CG-67)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는데, 조 케일리 미 제7함대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sup>42)</sup>
- 반면 중국은 이번 타이완 선거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타이완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비난
- 미국에서 제정된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과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타이완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타이완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
- 차이잉원 총통의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對타이완 무기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미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F-16V, C-103, F-5, IDF 등 군용기나 M1A1 전차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무기뿐만 아니라, 도입 시 타이완의 무기체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3세대 야간표적식별장비인 스나이퍼(Sniper), ATP(Advanced Targeting Pod)와 같은 장비들도 판매를 허용하여 중국이 강력 반발한 바 있음.<sup>43)</sup>

#### ■ 한편 중국이 강경한 군사적 행동을 통해 차이잉원 정부를 위협하는 행위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초 타이완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시진핑의 발언이 타이완 여론을 악화시켜 선

40) 『연합뉴스』, 「라이칭더 전 행정원장, 당내 경선 후보등록 마쳐」(2019. 3. 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9081200009?input=1195m>(검색일: 2020. 1. 17).

41) 『신동아』, 「대만은 지금도 中 해양진출 막는 美 불침항모」(2018년 10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479388/1>(검색일: 2020. 1. 17).

42) 『연합뉴스』, 「美 함정, 울들어 대만해협 첫 통과…“차이잉원에 ‘힘 실기’」(2020. 1. 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80800009?input=1195m>(검색일: 2020. 1. 17).

43) 이상만,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이해」 IFES BRIEF, No. 9-3, 2019,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203V.aspx?code=FRM190911\\_0001](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203V.aspx?code=FRM190911_0001)(검색일: 2020. 1. 17).

거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타이완 여론을 자극하는 강경 자세는 자제할 것으로 보임.

- 시진핑은 2019년 1월 2일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湾同胞书)’ 발표 40주년 기념식에서 타이완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발언<sup>44)</sup>
-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타이완의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강경 조치는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사회문화 방면

■ 양안간 인적교류는 양안 정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sup>45)</sup> 차이잉원 집권 2기의 양안 인적교류는 집권 1기 때처럼 둔화될 전망이다.

- 타이완인의 중국 본토 방문은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으나, 중국 본토인의 타이완 방문은 차이잉원 집권 이후 마잉주 시기보다 크게 하락함.
- 타이완에 방문한 중국인 수는 종교, 교육 및 문화예술·비즈니스·의료 등 각 분야에서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관광 분야 감소가 두드러짐.

■ 특히 중국정부가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고자 개시한 관광 제한 조치가 지속·확대될 경우 타이완 방문 중국 본토인 수는 둔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2016년 차이잉원 취임 후 중국정부는 자국민의 타이완행 일일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개별 관광을 금지함.
- 중국정부는 마잉주 집권 시 베이징·상하이 등 47개 도시 거주민에 한해 타이완 개별관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으나, 2019년 8월 양안관계 경색을 이유로 중단
- 타이완 방문 중국 관광객 수는 2015년 334만 명에서 2018년 19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듦.
- 중국 타이완사무관공실은 이번 총통 선거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담회에서 개별관광은 양안간에 평화로운 관계일 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발언<sup>46)</sup>

44) 『人民网』, 「习近平: 不承诺放弃使用武力 绝非针对台湾同胞」(2019. 1. 2), <http://tv.people.com.cn/n1/2019/0102/c418491-30499662.html> (검색일: 2020.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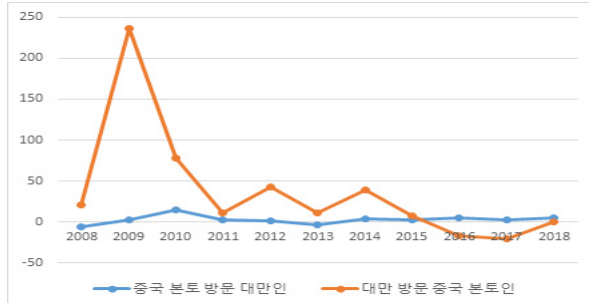
45) 중화경제연구원 대륙경제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면담일: 2019. 10. 1, 타이베이).

46)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관공실(2020. 1. 15), 「国台办新闻发布会辑录」.



그림 11. 양안 인적교류 증가율(2008~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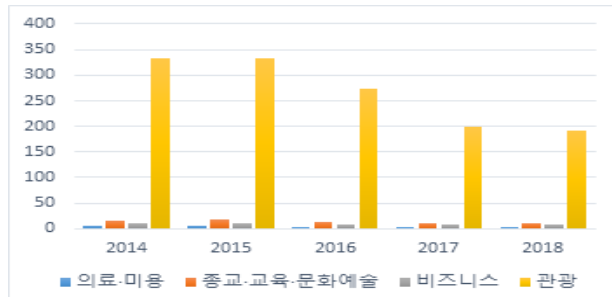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그림 12. 분야별 타이완 방문 중국 본토인 수 (2014~18년)

(단위: 만 명)



주: 홍콩 비포함.

자료: 타이완 대륙위원회.

■ 중국정부는 타이완 주민의 민심과 양안 통합을 위해, 전통적으로 친중 성향이 약한 타이완의 중소기업·중하계층·중남부·청년층(3中1靑)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중국은 타이완의 국민당과 친중 성향의 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대화, 협력을 전개해왔으나, 최근에는 청년 등 친중 성향이 약한 타이완 주민을 대상으로 교류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sup>47)</sup>
- 2018년에도 양안 청년 문화창의 상품 전람회, 푸젠성의 타이완 청년 취업·창업 스토리 공유회, 양안 청소년 성씨(姓氏) 기원 지식 겨루기 등 다양한 행사가 중국에서 개최됨.<sup>48)</sup>

## 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차이잉원 정부는 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추진되는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기회 및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리스크에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차이잉원 정부가 높은 對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경쟁관계에 있음.
- 신남향정책의 대상국은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남아시아 6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오세아니아 2개국(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 있음.
- 타이완은 신남향정책을 통해 상대국과 산업 서프라이인 체인의 통합, 현지 내수시장 개발, 인프라건설 협력 확대, 새로운 경제무역의 파트너십 확립 등을 추진
- 이미 신남향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형 종합농업단지를 설립했고, 타이완을 대표하는 6개의 대형 종합병원이 아세안 6개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베트남에서는 공업용지

47) 신상진(2016), 「중국의 대 타이완정책과 타이완 정권교체 이후 양안관계 전망」, 중소기업 제 40권 제1호.

48) 董玉洪(2019), 「2018年两岸关系回顾与展望」, 『现代台湾研究』.

업체(正隆)와 소형 모터 생산업체(東元電機)가, 인도네시아에서는 타이어 메이커(正新橡膠工業建大工業), 필리핀에서는 전자업체(金寶電子), 인도에서는 사출성형기기 업체(富強鑫精密工業) 등이 현지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sup>49)</sup>

- 타이완은 인재 교류 방면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던 동남아 출신의 유학생 수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2017년 신남향정책 대상국에서 타이완을 방문한 여행객 수도 228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27.63%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sup>50)</sup>
- 타이완이 중국에 의존적인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경제정책은 한국과 타이완 사이의 양자 무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양안관계의 악화는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예를 들어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하여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이 기술력이 앞선 타이완과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안관계가 적대적인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될 경우, 주변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타이완해협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로, 자체 기술로 만든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산둥호가 2019년 11월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음.
-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국 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하고 있어, 양측 사이의 제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 **KIEP**

49) 歐元韻, “動き出した新南向政策”, 『海外レポート』, <https://www.hiwave.or.jp/wp-content/uploads/2018/12/rp-tp1811.pdf#search=%27%E5%8B%95%E3%81%8D%E5%87%BA%E3%81%97%E3%81%9F%E6%96%B0%E5%8D%97%E5%90%91%E6%94%BF%E7%AD%96%27>(검색일: 2020. 1. 17).

50) 위의 자료.